자기 소개서

소 속	○○ 초	직위	교사	성명	○○○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 무개념 대학시절

○○교대를 다닌 나는 평소 교직에 관심이 없었기에 수업의 흥미가 떨어져 자주 지각하거나 일찍 수업을 빠져나왔고, 프로야구에 푹 빠져 매일 3-4시간씩 보는 등 국민이 가져야 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의미하게 대학시절을 보낸 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 지식만 주입하는 주입식 교사로 성장하였습니다.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 함께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난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도 아닌 체 졸업을 하였습니다.

❖ 1년 기다리다 드디어 발령

1987년 1년의 발령 대기 기간 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 발령이 나지 않아 전주에서 잠시 지내던 중 우연히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와 역사에 관심이 생겼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매일 시내에 혼자 나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위는 나의 가치관의 큰 변화를 주었고, 마침내 1988년 3월 OO으로 첫 발령이 났습니다.

첫 발령지인 OO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촌지, 각종 비리가 성행하고, 행정실이 없던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월급과 각종 경비를 계산하고 수업은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추구하고 참교육을 외치는 전교조에 자연스레 가입하였는데 활동 여부보다 가입 자체로 해직을 시키는 정권에 의해 강제로 교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해직,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

해직은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으나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해직기간 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들을 멘토 삼아 내가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인 농민(무주·진안·장수, 고창군)과 노동자(군산)와의 만남 및 연대 사업 참여, 시민연대(군산), 환경운동(군산과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참여(군산),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어른들을 가르치고, 중고생과의 독서모임, 여러 지역 선생님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경험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경험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근무(1994. ~ 2019. 6. 현재)

❖ 새로운 출발, 드디어 다시 교단으로

1994년 3월 4년 반의 해직생활을 끝내고 OO초로 복직을 하였다. 그동안 서지 못했던 교단의 아쉬움을 떨치듯 즐겁게 아이들과 생활했던 시기였습니다. 차가 없던 시절 학생들과 함께 시골길, 산길을 걸으며 가정을 방문하고 축산농가에서 일하시는 아버님을 도와 소젖을 나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낚시도 하던 장수에서의 추억, 1999년 전주 OO초 아이들과 학급문집을 만들고 비용을 만들고자 공병을 수집하고 동물원 앞에서 떡을 만들어 팔아 학급문집을 만들었던 일, 주말마다 모둠별로 선생님 댁 방문과 전주 돌아보기, 3학년 아이들이 지역 바로알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관공서를 찾아가 조사하기 등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교 변화에 적극 참여 시작

2013년 OO초 5년을 마치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집 근처 학교인 OO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됨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OO초에 갔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과 학년부장을 신청하여 2년간 학교의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6학급이 넘는 큰 학교이며 많은 수의 교사가 있어 생각을 단합하기 힘들었지만 조급함을 갖지 않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갔다.

점심시간에 운동장과 강당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으로 학년 간(6학년 독점으로) 다툼이 있음을 발견하고 학생과 교사가 토론을 통해 학년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전 학년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 자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전교다모임을 월 1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 교사운영위원, 인사자문위원으로 학교운영에도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 및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2년간 학교 친목을 담당하여 학교 전 교직원들이 친목과 소통으로 갈등 없는 학교생활에 이루고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5년 동안의 학년부장의 경험으로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 아이들을 위한 학생 사업인 사제동행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간 소통 이루기, 6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나 된 지구, 나의 꿈 등), 특별한 진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샘 프로젝트를 3월 1주간 실시하여 학급 학년이 평화로워지도록 노력하였으며 4학년 과정은 환경교육(바른 먹거리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3년 동안 교육복지우선사업 일을 맡아하면서 기초, 다문화, 조손 모부자 가족 등 80 여명의 소외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연극놀이, 진로체험, 원예놀이, 요리, 공연장 가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상담 등)을 진행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방임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체험학습을 통해서 문화적 감수성 증진 및 무기력증 해소, 자아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 후배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해마다 꾸준히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교사라는 것은 자부합니다. 공교육의 희망 혁신학교, 분노조절 상담지도, 뇌를 활용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예방 길라잡이, 학습부진학생 특성 이해 및 지도방안 등 꾸준한 연수를 받았으며, 또한 교육정책이 전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실감하며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정책 동아리(2013년-전북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4년-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및 교무행정업무전담팀 운영 방안 연구)활동을 통해 전북교육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처음 전주에서 OO으로 왔지만 교육생활의 반평생을 무진장(무주, 장수)에서 보냈기에 농어촌 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OO초에 와서 작년 5학년을 맡고 올해는 중임하여 다시 5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연임이나 중임이 학년을 알고 이해하며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중임 또는 연임하는 편입니다.

작년 5학년 마을교육과정 재구성(사회교과-**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등)**을 통하여 군청을 방문하기 전 아이들과 사전 궁금한 내용을 보내고 직접 듣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까다로운 문제 해결 요청으로 군청 담당자가 매우 곤혹스러워했으나 자료준비 및 아이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가르쳐주는 모습에 감동을 느꼈으며, 이때 받은 자료(ppt)는 교육청에 넘겨 진안의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들에게 보내졌고 활용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을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아이들이 마을을 알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 및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각 학년마다 이루지고 지자체가 조금씩 협력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올해 5-6학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책읽기와 연극 연수도 받고 전북 5학년 선생님들의 학년 연수도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2019. 2. 1. 제정) 제정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연수(15시간)도 받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50대 교사로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교육공동체가 존중되고 행복한 학교운영 -학교경영 방침(2019.9. ~ 2022.8.)

❖ 새로운 도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으로 살아온 것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행복한 채로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이제는 옆길도 가고자 합니다. 사실 한울타리이지만 새로운 학교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길(교무, 교감 경력 등)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걷지 않은 새롭고 다양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난 창의적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장이란 자리가 무엇일까? 난 잠시 담임 업무를 떠난 하나의 업무라고 봅니다. 4년의 교장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아이들과 교실에서 수업하는 담임교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 장승교육공동체와 함께 하기

누구나 알고 있고 학교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수준으로 학교운영계획서를 쓴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쩌랴.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고 싶어도 괜한 오해(불공정한 행위)를 받을까 봐 사실 답답했습니다. 사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장승의 학교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주변인으로 장승초를 바라본 시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장승의 공모교장으로 간다면 교육공동체와 함께 제대로 된 소통과 협력, 실천을 통하여 2010년 11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장승만의 특색 있는 학교 운영으로 가고 싶은 학교가 된 장승을 유지 발전시키고 부귀의 교육공동체 연대로 이제는 장승의 철학의 향기를 진안을 넘어 전라북도에 퍼뜨리고 싶습니다.